

# 『순수이성비판』의 첫째 이율배반 연구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

박 신 화

(서울대 철학과 석사)

## 1. 예비적 논의

이 글의 목적은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을 세부적으로 논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러한 논의는 그 자체로 너무나 방대한 양의 작업을 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첫째 이율배반을 통해 드러나는 “이성의 실험적 방법”(B XIV)이라는 칸트 전략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구되는,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순수이성비판』<sup>1)</sup>의 「감성론」에서 등장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낱말의 해명과 주석들에 대한 설명은 이 글에서 논외로 한다. 우리는 다만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이 도달한 그 결론에만 주목한다. 그런데 시공간론에 대한 초월 철학의 결론이 가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종래의 시공간론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글에서 칸트 당대에 지배적이었던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시공간론을 일별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가져다주는 소득

---

\* 이 글은 글쓴이의 석사학위논문 “『순수이성비판』의 첫째 이율배반 연구: 유한과 무한 그리고 이념”(2000년 서울대 철학과 석사논문)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I장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이하 『비판』, 『비판』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관례에 따라 A는 초판, B는 재판, 숫자는 면수를 나타낸다. 본문의 인용은 주로 『순수이성비판』, 최재희 옮김(서울: 박영사, 1972)를 따랐고, Felix Meiner Verlag(Hamburg, 1971)에서 간행한, 칸트의 *Kritik der reinen Vernunft*를 참고하였다. 몇몇 주요한 개념들에 대한 번역은 백종현 교수(「칸트에서 ‘선형적’과 ‘초월적’의 의미」, 『철학과 현실』, 1990 여름)의 제안에 따랐다. 최재희 교수의 번역과 글쓴이의 번역이 다를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표시하였다.

은 단순히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과 종래의 시공간론을 비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이율배반을 이해함에 있어 핵심적인 단서가 되어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알-아즘(Al-Azm)이 주장했듯이,<sup>2)</sup> 첫째 이율배반에서의 정립과 반정립은 각각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이 비단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시공간론만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은 데카르트에서부터 흄에 이르는 근대 철학 전반의 시공간론을 아우르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에 대한 로크의 영향이다. 로크의 시공간론은 그 안에 녹아 있는 서로 상충하는 견해들의 수만큼이나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을 정초함에 있어 풍부한 저수지가 되어 주었다.<sup>3)</sup> 그러나 로크의 시공간에 대한 견해 중에서 상대론적 견해는 후에 로크 스스로 폐기시킨 이론이고, 그의 나머지 견해들은 뉴턴의 견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감성론」에서의 논의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 해서,<sup>4)</sup> 우리는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시공간론에만 주의를 둔다.

뉴턴과 라이프니츠간의 시공간논쟁은 뉴턴의 시공간론을 대변하고 있는 클라크와 라이프니츠간에 주고받은 『서신교환』<sup>5)</sup>을 중심으로 전

2) Al-Azm, Sadik J. *The Origins of Kant's Argument in the Antinomies*,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p.5-7. Allison, Henry E.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An Interpretation and Defense*, Yale University Press(New Haven and London, 1983), p.38에서 재인용

3) 로크의 시공간론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서로 뒤섞여 있다. ① [시]공간은 단순 관념으로서 실제적이다. ② 공간은 그것의 경계를 마음어 도달할 수 없는 '한없는 대양'이다. ③ [시]공간은 [그 안에] 사물이 없이는 적극적인 실재적 현존을 가지지 않는, 현존하는 물체의 가능성만을 의미한다. ④ 시공간은 신의 충만한 영원성과 광대함에 의해 현존한다.(뉴턴적 견해) ⑤ [시]공간이 실체로서 틀 지워질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체의 네 번째 유형이었다.(상대론적 견해)(Buchdahl, Gerd, *Metaphysics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88, p.594).

4) 같은 책, pp.253-265, p.574, pp.594-595 참조.

5) Leibniz, G. W., *The Leibniz-Clarke Correspondence*, ed. and trans. H. G. Alexander, Manchester(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6) 클라크

개되고 있다. 클라크와 라이프니츠간의 시공간논쟁은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 둘 것은, 『서신교환』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공간의 문제이지만, 클라크와 라이프니츠 두 사람에게 있어, 동일한 논지가 시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클라크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신의 필연적인 현존 속에 함께 하는 신의 속성들이다. 클라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관념들은 “모든 인간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최초의 그리고 가장 명확한 단순관념들”<sup>6)</sup>이다. 「감성론」에서 공간의 선험성에 관한 두 번째 증명<sup>7)</sup>을 연상시키는 한 논문에서 그는 물체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공간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공간의 어떠한 부분이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공간이 그 자체 ‘로부터’ 그리고 그것 ‘밖으로’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고, ‘전체’가 옮겨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전체가 ‘그 자체로부터 옮겨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전체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옮겨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용어상 모순”<sup>8)</sup>이기 때문이다.

클라크에 따르면, 공간은 감각되지 않는으나 그렇다고 무(nothingness)는 아니다. 왜냐하면 무는 어떠한 속성도 가지지 않는 반면 공간은, 예를 들면, 양이나 차원 등과 같은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Cl V, 46) 공간의 이러한 속성들에 우리는 동질성, 불변성, 그리고 연속성 등과 같은 속성들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듯 클라크에게 있어서 공간은 단순히 물체의 부재가 아니라, 그 안에 사물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실재다. 그런데 클라크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이러한 속성들이 버클리의 그것처럼 단순히 시간과 공간에

(Cl)와 라이프니츠(Lz)의 편지에서의 인용은 다음의 표기에 따른다. (예, 라이프니츠의 5번째 편지의 37단락=Lz V, 37).

- 6) Vailati, Ezio, *Leibniz and Clarke*,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97, p.110.
- 7) “공간 안에 대상이 없는 일은 넉넉히 생각될 수 있으나, 우리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B38-39).
- 8) Vailati, Ezio, 같은 책, p.110.

대한 부정적인 성질규정인 것은 아니다. 버클리에게 있어서는 무한성, 부동성, 비감각성, 분할불가능성, 그리고 내적인 구별의 결여 등과 같이, 공허한(empty) 공간에 귀속되어지는 속성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고, 때문에 공허한 공간은 단순히 무에 불과한 것이 된다. 반면 클라크가 대변하고 있는 뉴턴에 따르면, 앞서 공간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된 공간의 속성들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한성은 공간에 관한 긍정적인 성질 규정이다. 왜냐하면 뉴턴이 주장하는 바, 한계의 개념은 부정적이고 그 한계의 부정은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sup>9)</sup>

뉴턴과 마찬가지로, 클라크는 공간이 필연적으로 무한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공간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공간이 그 자체가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것에 의해 한계지어지는 것을 가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이기 때문이고, 혹은 그 무의 관념 또한 여전히 공간일텐데, 이것은 또 다른 모순을 야기하기 때문이다.”<sup>10)</sup> 여기서 클라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그러나 하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그가 한계지어지는 것은 그 밖의 어떤 것에 의해 한계지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클라크의 생각은 아키타(Archyta)에 의해 주장되었고, 로크에 의해 받아들여진 공간에 대한 직관 논증<sup>11)</sup>을 연상시킨다. 요컨대 우리는 원리상 공간을 에워싸고 있는 테두리 밖으로 손을 뻗을 수 있고, 따라서 공간은 무한하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시공간론은, 클라크가 주장한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부정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먼저 확인해 둘 것은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인 전제들이 그의 시공간론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사실이다.<sup>12)</sup> 그는 새롭게 정의한 실체 개념과 그가 “위대한 2개의 원리”라고 부른 충족이유율과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의 동일성(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의 원리(Lz IV, 5)로부터 그의 시공간론

9) 같은 책, 같은 면.

10) 같은 책, p.111.

11) 같은 책, 같은 면.

12) Buchdahl, Gerd, 같은 책, p.464.

을 전개한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그들의 실체론을 기초한 근본 가정, 즉 ‘연장’은 실제적인 크기와 모양을 내포하고 있다는 가정을 정면으로 반대한다.<sup>13)</sup>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실체인 모나드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 활동의 원천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상호간에 어떠한 인과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후에 칸트가 지적하였듯이,<sup>14)</sup> 실제에 오직 이러한 내적인 본성만을 부여하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어떤 것,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들, 곧 어떠한 종류의 외적인 관계들(시간과 공간)도 들어서기 어렵다. 때문에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사물들의 단순한 ‘현상적 질서’로 격하된다. 곧 시간은 계기적인 것들(successions)의 질서이고, 공간은 공존하는 것들(coexistences)의 질서일 뿐이다.(Lz III, 4)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현상적 질서’로 파악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단지 관계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 실제적 시공간론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된다. 클라크의 절대시공간론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바, 하나는 신학적 이유에서의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충족이율과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반한 비판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만일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면 신 이외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이 신의 본성에 속할 것인데, 양쪽의 결론 모두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신에 버금가는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 존재를 생각할 수 없거니와, 시간과 공간같이 분할되는 것들을 신의 속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클라크는 시간과 공간이 신의 속성들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은 본질적으로 분할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라이프니츠

13) Stumpf, Samoel Enoch, *A History of Philosophy*, (McGraw-Hill, Inc., 1975), 제 2판, 이광래 옮김, 『서양철학사』, 종로서적, 1983, 333면.

14) Buchdahl, Gerd, 같은 책, p.465.

에 따르면, 클라크의 절대 시공간론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것이 보다 본질적이다. 그것은 바로 충족이유율에 근거한 비판인 바, 만일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동질적이기 때문에,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신이 세계를 창조할 것인가의 이유가 찾아질 수 없는데, 이것은 충족이유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Lz III, 5) 그리고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비판은 곧바로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반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만일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면, 왜 신이 더 이전에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는지가 정당하게 물어질 수 있고, 어떤 두 순간도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신의 선택에 어떤 이유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모든 비판이 언뜻 보아 신학적인 차원의 비판에만 머무는 듯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현대의 우주론이 예측하듯이, 시간과 공간의 발생은 '신의 창조행위'를 전제함이 없이도 충분히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클라크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난점들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서 그것의 궁극적인 실재성을 박탈하고 시간과 공간을 모나드들의 한갓 속성으로 환원시킴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sup>15)</sup> 라이프니츠에게서 시간과 공간은 힘에 관계하는 모나드들의 성질들의 일종의 '현상적 출현'인 것이다.<sup>16)</sup> 그런데 바로 여기에 라이프니츠의 이론이 가진 어려움이 있다. 시간과 공간을 모나드들의 한갓 속성으로 환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자체들이라는 의미에서 실재적인 '모나드들'의 속성인 한, 시간과 공간은 여전히 물자체의 특성일 수 있지 않을까?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현상하는 경험적 대상에 대한 앎이 어느 정도 물자체에 대한 앎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까? 최소한 칸트는 그렇다고 본 것 같다. 후에 칸트는 클라크와 라이프니츠가 서로에 대해 제기했던 많은 비판점들을 자신의 시공간론을 정초함에 있어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칸트의 뉴턴 비판의 핵심이 시간과 공간이 물자체의 형식일 수 없다는 데에

15) Buchdahl, Gerd, 같은 책, p.574.

16) 같은 책, p.465.

맞추어져 있다면, 라이프니츠 비판의 핵심은 라이프니츠의 시공간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기하학의 필증성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칸트가 뉴턴과 라이프니츠 양자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제기하는 비판의 기저에 흐르는 칸트의 일관된 논점을 찾아야 한다.

## 2.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

칸트는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을 정초함에 있어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시공간론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양자를 철저히 변형시킨다. 때문에 양자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불평의 소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논의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시공간론과 같이 철저히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두 이론 사이에서 칸트가 동일한 오류를 간파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초월적 실재론이 가지고 있는 오류다.

시공의 절대적 실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시공을 물자체로서 실체적이라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고 실체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건 간에 경험 자신의 원리에 모순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공이 실체적이라는 첫째 설을(보통 수학적 자연과학도가 이 설을 취하고 있지만) 채택한다면 그들은 영원, 무한, 자립인 두 가지 불가해한 것(시간과 공간)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요, 이런 불가해한 것은, 그 자신 현실적인 것이 아니면서, 모든 현실적인 것을 단지 포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시공이 실체의 속성이라는 둘째 설(즉 약간의 형이상학적 자연론자의 설)을 취해서, 시공이 경험에서 추상된 관계이기는 하되 경험에서의 이런 추상에 있어서 불명석하게 표상된 현상들의 관계(공존하고 계기하는)라고 본다면, 그들은 (가령 공간 안의) 실재물에 관한 수학의 선험적 이론의 타당성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적어도 수학의 절대 필연적 확실성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수학

의 절대 필연적 확실성은 후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둘째 설에 좇으면 시공이라는 선험적 개념은 결국 상상력의 산물이 된다. 그리고 그런 상상력의 원천은 사실은 [감각의] 경험에서 구해져야 하고, 경험을 추상하게 된 관계들로 인해서 상상이 어떤 것[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며, 이 어떤 것은 관계들의 보편성을 포함하기는 하되, 자연(Natur)이 그런 관계들에 결합시킨 제한[불명석한 인식]을 무시하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설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현상의 분야를 수학적 주장을 위해 해방하는 정도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성이 현상의 분야를 넘어서려고 할 경우에는, [실체라는 시공] 조건에 의해서 난처하게 된다. 둘째 설을 취하는 사람들은 지성의 분야에 관해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다. 즉 그들이 대상을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지성과의 관계에서 대상을 판단하려 할 경우에 시공의 표상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으로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는 선험적 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선험적인 수학적 인식의 가능성에 관한 근거를 줄 수 없고, 경험적 명제들을 수학의 주장과 필연적으로 일치시킬 수도 없다.(B56-57)

뉴턴의 시공간론<sup>17)</sup>을 칸트의 이해에 비추어 초월적 실재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칸트는 「감성론」의 공간론을 시작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세 가지 가능한 입장들<sup>18)</sup>을 제시하는

17) “확실히 뉴턴의 이론은 이것이다. ‘공간’은 자존하는 바, 비록 어떠한 실재적 공간도 존재하지 않지만, ‘관념들’이 공간 속에서 사물들을 저기 밖에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방식으로 ‘공간 속에서 사물들을 본다’는 문맥에서 그렇다. [그런데] 그 ‘관념들’ 자체가 ‘저기 밖에’ 있지 않으므로, 공간은 다만 관념적이다. 그렇듯 ‘우리의’ 공간은 우리들이 ‘사물들을 저기 밖에 있는 것으로 봄’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그러나 뉴턴은 동시에 이것이, 그 안에서 실재적 사물들로서의 모든 것이 자존하는 그 하나의 실재적 공간에 대한 ‘비유’일 뿐이라는 사실 또한 긍정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의 공간 안에서 우리들의 지각에 의해, 그리고 지각들의 문맥에서 자존하는 것처럼, 신의 지각에 의해 하나의 실재적 공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신은 사물들의 관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자체를 본다.’” (Buchdahl, Gerd, 같은 책, p.596).

18)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은 현실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들의 사물의 한갓 규정이거나 사물들의 관계일 뿐이로되, 직관되지 않는 물



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뉴턴의 견해로 보이나, 칸트는 그다지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는 다만 시간과만 관련해서 뉴턴의 이론이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칸트는 “만일 시간이 자기 자신만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현실적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재하는 것이 된다”(B49)라고 말한다. 확실히 칸트는, 비록 우리가 사유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감각적 대상들을 제거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순수 직관 안에서 인식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그 속에서의 대상들이 없이는 무라고 간주한다.<sup>19)</sup> 앞서 인용한 본문에서 밝혔듯이, 칸트는 뉴턴의 가설 하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두 가지 영원하고 무한한 자존하는 비실체들 혹은 ‘Undinge’,<sup>20)</sup> 즉 거기에 모든 현실적인 사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B56) 그는 그런 이론은 현상의 세계에 수학적 진리들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그 이론의 신봉자들은 지성이 현상의 세계를 넘어서고자 할 때 당혹해한다고 주장한다.(B57)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비록 여기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칸트가 후에 시간과 공간을 물자체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심지어 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때(B71), 지적하고자 했던 점이다.<sup>21)</sup>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초월적 실재론이 가진 어려움의 한 측면이다.

---

자체에도 속하는 규정 혹은 관계일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공간과 시간은 오직 직관 작용의 형식에만 속하고, 따라서 인간 심성의 주관적 성질일 뿐이라서 이런 성질이 없이는 공간이니 시간이니 하는 객어가 사물에 도무지 부여될 수 없는 것인가?” (B37-38).

19) Paton, H. J.,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New York: Humanities Press Inc., 1970), vol. 1, p.132.

20) 칸트에게 있어서 ‘Ding’은 ‘etwas’를 ‘Unding’은 ‘nichts’를 의미한다. 이 ‘Undinge’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자기모순성에 대한 지적은 B348에서. 거기서 칸트는 순수 시간과 순수 공간은 비실체가 아니라 ‘상상적 실재(ens imaginarium)’라고 말한다.

21) Paton, H. J., 같은 책, 같은 면. 뉴턴의 절대 공간에 대한 칸트의 비판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곳으로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제일원리』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은 Ewing, A. C.,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김상봉 옮김, 『순수이성비판입문』, 한겨레, 1985, 75-76면 참조.

칸트에 의해 이해된 뉴턴의 이론이 초월적 실재론의 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다하더라도, 라이프니츠의 이론이 초월적 실재론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시간과 공간적 관계가 우리에게서 독립된 대상들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서 시간과 공간적 관계인 양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시공간적이지 않은 관계가 독립된 대상들, 곧 모나드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sup>22)</sup> 그러나 칸트는 시간 개념의 초월적 해명에서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의 시간을 “사물의 객관적 특성으로서 사물에 속해 있는 것”(B49)이라고 간주한다. 어떻게 이러한 오해가 가능했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에 대한 칸트의 평가가 정당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라이프니츠에게서 그 오해의 혐의가 있음 또한 인정한다.

칸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시간과 공간은 “현상들의 관계, 곧 경험 속에서 추상화되고 추상화 속에서 혼란스럽게 표상되는 관계”(B56-57)이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칸트의 이러한 평가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현상들이란 궁극적인 실체인 모나드들의 불명료한 ‘연장’이라는 사실<sup>23)</sup>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가장 기초적인 추론을 전개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모나드들의 불명료한 특성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칸트적 용어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물자체의 형식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경우 우리는 칸트와 같이, “관명한 표상과 관명치 않은 표상과의 구별”(B61)이라는 라이프니츠의 구분이 논리적인 구분일 뿐, 내용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추가로 지적해야 한다.

‘이 개념으로부터의 결론’이라고 언급한 단락에서 칸트는 라이프니츠의 견해를 단순화시킨다.<sup>24)</sup> ‘혼란’의 이론을 무시하고, 칸트는 라이프니츠의 견해가 시간과 공간이 우리들의 직관의 주관적 조건과는

22) Ewing, A. C., 같은 책, 64면.

23) Buchdahl, Gerd, 같은 책, p.468.

24) Paton, H. J., 같은 책, pp.133-134.

독립해 있는 사물들의 특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칸트는 자신의 이러한 견해를 「분석론」의 ‘부록’에서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비록 라이프니츠가 시간과 공간의 규정들을 파생적인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론에 있어서 라이프니츠는 초월적 실재론자다.<sup>25)</sup> “라이프니츠는 공간을 실체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라고 생각했고, 시간을 실체상태의 역학적 계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은 사물에서 독립해 있다는 특성을 자체상 가져야 할 성싶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공간과 시간 개념의 ‘불판명성’에 돌려보냈다.”(B331)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이렇듯 물자체의 불명료한 특성이라고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학문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그 경우 라이프니츠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단지 경험으로부터의 일반화라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수학에 관한 필증적인 확실성을 획득하지 못할뿐더러, 수학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현실 세계에 대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게 된다.(B57) 이것은 칸트가 주목하고 있는 초월적 실재론이 가진 또 다른 어려움의 측면이다.

### 3.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과 첫째 이율배반의 관계

칸트는 『비판』의 전편에 걸쳐 초월적 실재론과의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초월적 실재론과 초월 철학 사이의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은 물론 순수이성의 이율배반에서이지만,<sup>26)</sup> 지금까지 살펴온 바와 같이 그 전투는 이미 『비판』의 「감성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최초의 전투에서 칸트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끄는 초월적 실재론의 진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지만, 공격은 미진한 것이었고, 적진을

25) Ameriks, Karl, “The Critique of metaphysics: Kant and traditional ontology,” ed. Paul Guyer,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255.

26) Allison, Henry E, 같은 책, p.35.

완전히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그 까닭은 「감성론」의 시공간 논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 문제는 「감성론」의 시공간 논증의 지위 문제로, 바로 과연 그 시공간 논증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증명일 수 있느냐는 문제다. 사실 이 문제는 자신의 시공간론을 논증함에 있어, ‘증명’(Beweis)<sup>27)</sup>라는 말 대신 ‘해명’(Erörterung)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sup>28)</sup> 칸트 스스로 제기한 물음이지만, 『비판』에 대해 온건적인 주석가들조차도 똑같이 물음을 제기한다.<sup>29)</sup> 칸트는 이미 『비판』의 「방법론」에서 “대상이 직관중에 주어지는” ‘필증적 증명’(Demonstration)<sup>30)</sup>과 “순전히 언어(사고에서

27) 칸트는 ‘이성의 증명에 관한 순수이성의 혼란’이라는 절에서 증명 개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증명은 직접적(명시적(ostensiv))이거나 간접적(apagogisch)이다. 직접적 혹은 명시적 증명은 인식의 모든 종류 가운데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진리의 근원에의 통찰과 관련되는 증명이다. 반면 apagogisch한 증명은 참으로 확실성을 산출할 수는 있으나, 진리의 가능성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진리의 파악을 산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간접증명은 이성의 모든 의도를 만족시키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긴급대책(Nothilfe)이다. 그럼에도 간접증명은 직접증명보다 우월한 명증성(Evidenz)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은 최상의 연결 이상으로 표상에서의 명석을 언제나 수반하고, 이를 통해서 필증적 증명(Demonstration)의 직관성에 더 접근하는 점이다.” (B817-818).

28) “나는 해명이라는 말 아래서 관념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의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판명한 표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명이 선험적으로 주어진 관념을 표시하는 것을 포함할 적에는 ‘형이상학적’이다.” (B38).

29) 예를 들어, Paton, H. J., 같은 책, p.94 참조. “「감성론」의 주장들을 단순한 전제들로 보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칸트가 거기서 완전한 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가정 또한 잘못이다.”

30) 최재희 교수는 『비판』의 번역본(517-518면, 547-548면)에서 “Demonstration”과 “ostensiver Beweis”를 모두 “명시적 증명”이라고 번역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앞의 각주에서도 인용하였지만, 칸트에 따르면, “Demonstration”은 그것이 직관의 구성으로부터 산출되는 한에서 오직 “필증적 증명(ein apodiktischer Beweis)”인데, 이러한 필증적 증명은 오직 수학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직접적 혹은 명시적(ostensiv) 증명은 모든 종류의 인식에서 진리의 확신과 진리 원천에의 통찰을 동시에 결합시키는 증명인데, 이러한 명시적 증명은 초월적 증명의 세 번째 규칙으로서 철학적 증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때문에 두 개념은 번역에 있어 철저한 구별을 요하는 바, 우리는 “ostensiver Beweis”을 원래대로 “명시적 증명”으로, “Demonstration”을 “필증적 증명”으로 각각 구별하여 번역하였다. 요컨대 “명시적 증명인 철학적 증명은 직접적 증명이고, 필증적 증명인 수학적 증명

의 대상)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강술적(논변적) 증명’(akroamatische (diskursive) Beweise)을 구분하고 있다.(B763) 칸트는 여기서 “절대 필연의 증명이 직관적인 한에서 그것을 필증적 증명”(B762)이라고 말하는데, 칸트에 따르면 오직 수학만이 이러한 필증적 증명을 포함한다. 반면 철학과 같은 “추리적 인식에서의 선형적 개념으로부터는 — 단 점에서는 판단이 아무리 절대 필연적으로 확실하더라도— 직관적 확실성 즉 자명성이 발생할 수 없다.” 때문에 그는 이러한 철학적 증명을 필증적 증명이기보다는 강술적 증명이라고 부르고자 한다.(B763) 그렇다면 일견 문제는 없어 보인다. 「감성론」에서의 논증들은 전혀 증명이 아닌,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의 ‘해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만일 그 개념의 해명이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철학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개념의 해명을 듣기에 앞서, 그 철학적 전제들의 타당성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칸트의 초월 철학의 체계에 있어 시공간론은 「분석론」과 「변증론」, 그리고 「방법론」의 토대가 된다. 우리가 「감성론」의 시공간 논증에서 증명의 성격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칸트의 초월 철학이 ‘독단적 전제들의 오류’와 ‘순환논증의 오류’의 산물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sup>31)</sup>을 복권시키려는 현대의 논의들이 넘을 수

은 간접적 증명인 것이다.” (Mancosu, Paolo, *Philosophy of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Practice in the Seventeen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05-108).

- 31) 칸트의 초월 철학을 ‘초월적 관념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초월 철학의 핵심적인 주장은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곧바로 경험의 대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다”(B197)는 것이다. 이것은 초월 철학의 적극적인 면이다. 반면 ‘초월적 관념론’은 초월 철학의 소극적인 면이다. 요컨대 시간, 공간 표상이 ‘초월적 관념성’을 갖는다 함은,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을 벗어나 사물 자체의 바탕에 놓여 있는 어떤 것으로 납득할 경우엔 아무 것도 아니다”(B44), 혹은 “그것은 감성적 직관의 주관적 조건임을 도외시하면 아무 것도 아니며 (우리 직관과의 관계를 떠난) 대상들 자체에는 실제로도 속성으로도 덧붙여질 수 없다”(B52)는 것을 뜻한다. 초월 철학의 소극적인 면인 ‘초월적 관념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칸트에게 있어서

없는 벽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문제에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칸트는 종래의 경험론과 합리론이 가진 독단적 전제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철학 안에 놓인 독단적 전제들은 간파해내질 못했다.<sup>32)</sup> 가이어(Guyer)의 주장에 따르면, 칸트는 진리대응이론의 인식론적 비일관성에 토대하여 자신의 초월적 관념론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비판』은 결코 인식론적 겸손함의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표상들의 유일하고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독단적 전제’에 기초하여 물자체가 시공간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결론을 추론해낸 결과다.<sup>33)</sup> 때문에 가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에 대한 논증을 복권시키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지되기 어려운 필연적 진리의 본성에 대한 전제들을 깔고 있다.”<sup>34)</sup>

가이어의 주장처럼, 초월 철학이 어느 정도 칸트 자신의 전제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앞서 다룬 「감성론」의 논의들에서만 보더라도, 비록 우리가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직관’과 ‘개념’, ‘현상’과 ‘물자체’, 그리고 인간의 ‘감성적 직관’과 신적인 ‘지적 직관’ 사이의 구분은 칸트가 자신의 시공간론을 논증함에 있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분이었다. 그렇다면 사실이 이러한 진대 가이어의 주장처럼 칸트의 초월 철학은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이론인가? 우리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보기에 가이어의 주장은

---

‘초월적 관념론’은, 우리에게 인식되는 세계는 단지 현상일 뿐이며, 우리 의식의 초월적 기능 원리들, 즉 공간, 시간 표상 및 범주로서의 순수 지성 개념들은 경험을 초월해서는, 즉 초월적으로는 아무런 타당성도 갖지 못함을 주장함에 반하여, 후설의 ‘초월적 관념론’은 의식의 초월성, 즉 지향성은 세계에 대한 의미부여 작용이며, 따라서 세계는 의식에 의한 의미 형성체임을 말한다.(이상, 백종현, 「의식의 초월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4집, 『후설과 현대철학』, 한국 현상학회 편, 서광사, 1990, 17-50면 참조) 이후의 논의에서 우리가 ‘초월적 관념론’을 언급할 때, 지금 언급한 초월 철학과 ‘초월적 관념론’ 사이의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Guyer, Paul, “The Rehabilitation of Transcendental Idealism,” ed. Eva Schaper and Vossenkuhl, *Reading Kant*, Basil Blackwell Ltd., 1989, pp.140-165.

33) 같은 책, pp.144-145, pp.147-148, pp.151-152 참조.

34) 같은 책, p.165.

『비판』의 체계에서 「변증론」, 특히나 이율배반이 가지고 있는 체계 내적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결과이다. 「감성론」에서의 시공간 논증이 많은 부분 초월 철학의 개념구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칸트는 자신의 시공간론의 정당성을,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수학적 이율배반을 통해, 자신의 이러한 개념구분이 독단적 전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증하기를 바랐다는 것이 우리의 소견이다.

우리가 보기에, 칸트 또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앞서의 비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감성론」의 시공간 논증은 종래의 시공간론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비판이었지만, 초월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때문에 칸트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성의 우주론적인 자기모순의 비판적 해결’이라는 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감성론」에서 현상의 초월적 관념론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것에 충분히 만족을 못 보았을 때에, 이율배반을 통해서 현상의 초월적 관념론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이점이 있다.”(B534)

이제 우리는 초월 철학의 시공간론과 첫째 이율배반의 관계의 중심에 도달했다. 칸트에 따르면, 세계는 “현상들의 계열의 종합의 총체성”을 의미하고, 첫째 이율배반은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상 유한한가 무한한가를 다룬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놓여있다. 그것은 바로 칸트가 자신의 초월 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 세계를 문제삼았는가하는 물음이다. 그리고 이 물음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첫째, 앞서의 칸트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의 구성 요소는 ‘현상’인데, 이 현상 개념이 뉴턴과 라이프니츠로 대변되는 초월적 실재론에서는 어떤 지위를 갖는가? 그리고 둘째, 그 현상 개념은 칸트의 초월 철학에서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 우리가 보기에, 칸트의 초월 철학은 최종적으로 바로 이 현상 개념을 규명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감성론」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칸트가 자신의 초월 철학의 현상 개념을 초월적 실재론의 그것과 구별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그 이유는 이렇다.

칸트에 따르면, 초월 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름 아닌 “모든 현상을 한갓 표상으로 보고 물자체로 보지 않는 것”(A369)에

있다. 그런데 앞서 다룬 초월적 실재론의 결론<sup>35)</sup>에 따라서, 만일 시간과 공간을 우리의 주관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초월적 실재라고 보면, 그리고 현상들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보면, 그 사물은 한갓 주관의 표상인 것이 아니라 주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칸트적 의미의 사물자체가 된다.<sup>36)</sup> 반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한갓 주관의 직관방식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현상하는 사물들은 주관에 의해 규정되는 표상들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세계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플라톤의 변증술의 한 대목<sup>37)</sup>을 연상시키는 칸트의 전략을 본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 안의 개개의 사물들이 물자체가 아니라 현상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현상들의 계열의 종합의 절대적 전체”를 문제삼는다. 요컨대 만일 시간과 공간 안의 사물들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자체들<sup>38)</sup>이라면, 그 사물자체들의 절대적 전체,

35) “초월적 의미의 실재론자는, 우리 감성의 이런 변양을 그 자체상으로 존립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한갓 표상을 ‘물자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B519).

36) 시간과 공간을 뉴턴적인 의미의 ‘절대적 실재’로 보긴, 아니면 칸트가 이해한 라이프니쯔적인 의미의 ‘절대적 실재인 모나드들의 속성’으로 보긴 그렇다. 뉴턴에게 있어서, 절대적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신이 직관하는 사물들 자체”이다. 그리고 라이프니쯔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 현상하는 [경험적] 사물들은, 칸트의 해석에 따라서 그 ‘정도’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여전히 모나드들, 다시 말해 칸트적 의미의 사물들 자체이다.

37) “그러니까 어쩌면 올바른은 한결 큰 것에 있어서 더 큰 규모로 있을 것이며, 또 알아내기도 더 쉬울 결세. 자네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먼저 나라들에 있어서 올바른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도록 하세나. 그런 다음에 한결 작은 형태의 것에 있어서 한결 큰 것과의 유사성을 검토해 보면서, 역시 개개인에 있어서의 올바른을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세나.” (Platon, *Politeia*, ed. J. Burnet, Oxford Classical Texts, 1902,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 서광사, 1997, 146면).

38) 칸트는 『비판』의 전편에 걸쳐 ‘물자체’와 ‘물자체들’을 뒤섞어 쓰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물자체들이’ ‘물자체’의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일 ‘물자체’와 ‘물자체들이’ 양에 있어 다르다면, ‘물자체’가 범주규정을 가진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비판』의 기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두 가지 표현은 단지 문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도 여기서 문맥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물자체들’이라고 썼다. 더 자세한 논의는 Ewing, A. C., 같은 책, 197



곧 세계는 유한하거나 무한할 것이다. 그런데 첫째 이율배반을 통해 드러나는 바는 그 세계는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절대적 전체성”<sup>39)</sup>은 한갓 우리 이성의 초월적 이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세계를 이루는 현상들(혹은 사물들)은 물자체들일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주관의 표상, 곧 칸트적인 의미의 현상일 뿐이다.

---

면 참조.

39) 이후의 논의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여기서 “절대적 전체성”은 어떠한 자기모순성도 함축하고 있지 않은 순수이성의 한갓 이념이지만, “현상들의 계열의 종합의 절대적 전체”는 순수이성의 이념을 경험의 대상에 적용한 것으로서 자기 모순적인 개념이다.